

육류의 유해 잔류물질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농림수산부 제공—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필요한 이유는?



1. 동물약품과 약품이 첨가된 사료는 바르게 사용할 경우 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고 가축의 성장촉진에 도움을 주지만
2. 잘못 사용하거나 필요이상의 양을 사용하면 오히려 가축의 성장에 해가 되며, 고기속에 약품의 성분이 남게되어
3. 가축의 발육에 이상이 오며, 내성균이 나타나 질병의 치료에 어려움을 주고 사람의 건강까지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에서는 '90. 12. 1부터 시판되는 육류에 대한 잔류물질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잔류물질이란

가축의 사양과정에서 첨가·투약 또는 오염되는 물질로서 가축 및 축산물내에 남아있게 되는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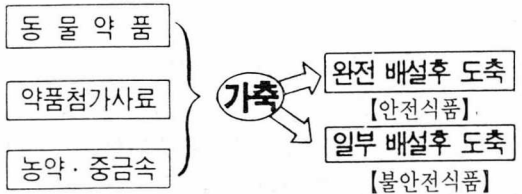
항행제, 설과제 등 동물약품 농약, 곰팡이독소, 중금속등

동물약품은 어떻게 고기속에 남게되는가?

-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약품과 성장촉진 및 사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배합사료에 첨가되는 동물약품의 대부분은 가축의 체내에 흡수되어 일정기간 작용을 한 후 오줌등과 함께 서서히 배설됩니다.
- 그러나 이미 체내에 흡수된 동물약품이 몸 밖으로 완전히 배설되기전에 도축을 하였을 경우 약품의 성분이 고기속에 남아 있게 됩니다.

고기속에 남게되는 기타의 물질은 무엇인가?

- 동물약품 이외에도 가축이 환경에 오염된 풀이나 물, 변질된 사료를 먹었을 때에도 유해한 물질이 고기속에 남게 됩니다.
- 풀이나 물에 오염을 시키는 물질로는 납, 수은 등 중금속과 농약, 곰팡이 독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해물질의 잔류를 막을 수 있나?

양축농가는



○가축이 먹는 사료와 물은 오염이 되지 않으나 주의깊게 관찰하여 오염되지 않은 사료와 물을 급여하고

○동물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장의 안전사용 10대수칙을 꼭 지켜서야 하며

○특히 질병을 치료할 때 약품의 선택은 전문수의사와 상의하여 사용합시다.

○다 자란 가축은 휴약기간을 충분히 지킨 후 출하를 하시되 출하전 일정기간은 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후 후기배합사료를 먹어야 합니다.

“동물약품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동물약품 안전사용 10대수칙

1.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하십시오.
2.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에만 사용하십시오.
3. 사용 용량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4.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주십시오.
5.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6.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7.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하십시오.
8. 휴약기간이 되면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먹이십시오.
9. 동물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 유지하십시오. 이 기록은 시장출하와 치료시에도 필요합니다.
10.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근의 진료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동물약품 제조업소는

○동물약품에 대한 효능·효과등 표시사항을 양축농가가 알기 쉽도록 정확히 명시하고

○동물약품사용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의사항을 필히 표기하며

○약품의 판매시 휴약기간 준수 및 사용방법등을 홍보하여

○양축농가가 동물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배합사료 제조업소는

○동물약품이 첨가된 배합사료는 포장에 첨가약품의 내용과 휴약기간 및 주의사항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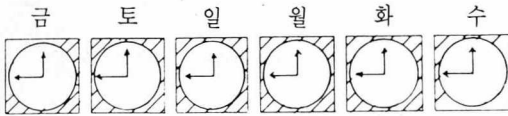
○배합사료 제조시 동물약품첨가 사용기준을 준수하며

○사료판매시 후기 배합사료(출하전 가축용)의 급여방법 지도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양축농가 휴약기간 계산방법”

휴약기간 1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투약기간으로 부터 만24시간이 지난 시점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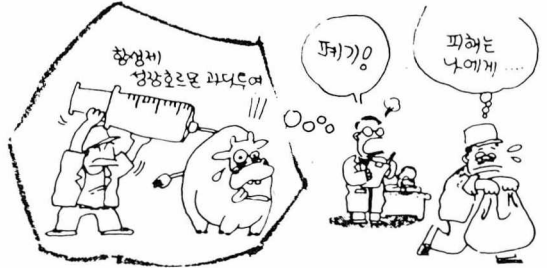
〈출하전 휴약기간의 예〉



동물약품의 휴약기간은 약품의 종류와 투여하는 함량에 따라 다르고, 또 축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몇일이라고 말할 수 없으나, 예를들어 휴약기간이 출하전 5일이라고 정하고 금요일 오전 9시에 투약하였으면 토요일 오전 9시가 휴약이 실시된 1일간이 되고, 5일이 되는 날은 수요일 오전 9시가 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잔류허용기준을 넘으면 어떠한 조치를 받게되나?

○정부에서는 '89년 5월부터 축산물의 잔류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으며, '90년 12월 1일부터는 검사결과 잔류허용 한계치를 넘는 축산물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판매금지 조치를 당하게 될 경우 해당제품의 폐기는 물론 원료육을 제공한 가축의 출하자를 추적, 예방차원에서 제재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육류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돈육의 수출이 어렵게 되어 결국 양축농가 여러분은 직접·간접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동물약품과 사료의 올바른 선택사용은 육류의 상품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길입니다.